

## 대학원에 있어서의 언어교육 연구\*

—특히 독일어 교육 개선책을 중심으로—

金 最 鎭  
李 光 淑

### I. 독일어 교육의 형태

우리나라에서의 독일어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제 2 외국어로서의 교육이며, 둘째는 대학에서의 독일어 교육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제 2 외국어로서 현재 독일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중에서의 과목을 선택하게 되며 일 주일에 약 2시간 수업으로 평균 3년간 지속된다.

대학에서는 필수 교양과목으로서의 교양 독일어교육과 전공 과목으로서의 독일어 교육으로 나뉘어진다. 필수 교양과목으로서의 독일어교육은 학부과정중 6학점, 즉 일주일에 3 시간 수업으로 두 학기 이수된다. 전공과목으로서의 독일어 교육은 학사과정을 위한 학부 교육과 석사, 박사과정을 위한 대학원교육으로 나누어지며, 학부에서는 독어를 주 전공만으로 배우는 교과과정에서는 63학점, 독어를 주 전공, 다른 과목을 부 전공으로하는 과정에서는 주 전공으로써 48~50학점, 또 독어를 부 전공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24~25학점이, 대학원에서는 총 24학점이 이수되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어 교육의 최종 이수과정인 대학원에서의 독일어 교육에 관해서 논하고자 하며 이에 최종 이수과정이라 함은 학교수업이외에 다른 사립 또는 외국기관(예를 들어 독일 문화원 등)에서의 연수교육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을 밝혀둔다.

### II. 대학원에서의 독일어 교과과정

대학원에서 독일어 교육실태를 알아보기위해서 1981년도 1학기 인문대, 사대 독일어과 교과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학부 2,3,4학년에서 인문대, 사대 교과목배당은 문학, 어학배울이 균등하게 각각 8강좌씩 24학점으로 되어있다. 교과목의 내용면에서는 문학은 시, 소설, 희곡, 작가론, 고전, 문예학 등 세분화되어있으나, 어학과정에서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세분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독문법, 독작문, 시청각 교육, 기초 독일, 실용 독일, 시사

\* 이 연구 논문은 1980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독어, 고급 독어 등은 어학강좌 과목으로 취급하였으나, 사실상 이들은 어학, 문학 두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언어 습득(Spracherwerb)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라 하겠다. 대학원에서의 어학강좌는 인문대에서는 2강좌(독어 통사론과 독어학 연구 방법론)로써 11강좌인 문학과정에 비해 월등히 적으며, 사대에서는 문학이 2강좌이며, 어학이 단지 한 강좌(독어 음운론)만으로 교과과정이 짜여있다.

이러한 독어학 교과과정의 과소한 비중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첫째는 어학의 세부 분야에 대한 강좌가 보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어학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수진이 부족하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둘째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문학을 전공으로 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학생들이 문학을 배우려는 학습의욕, 동기유발, 문학에 대한 흥미, 취향이 어학에 비해 높은 데에 기인한다.

위의 사실을 고려하고 이에 대학원에서의 어학에 대한 교과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및 교과 내용면에서의 개선, 교수진의 확보, 학생들의 어학에 대한 흥미,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위해서는 어학, 문학, 독일사정(Landeskunde)에 대한 교과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독어학, 독문학을 전공, 부전공 관계로서 제정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즉 독문학을 전공하면 독어학을 부전공으로 할 수 있던가, 아니면 독어학을 전공으로 하면 독문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면 교과과정면에서의 독어학 교육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Ⅲ.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독어 교육

대학원의 석사, 박사과정의 독어교육은 학부에서의 전공과목을 보다 더 집약적으로 하는 학습 과정으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대학원에서의 독어 교육은 목적대상을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니, 고등학교 독어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대학에서 독어를 전공으로 가르치는 교수양성을 위한 교육과 어문계, 행정계, 기타 자유업계에서 종사할 전문인,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이라 하겠다.<sup>(1)</sup> 이러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에서의 독어 교육을 학부 교육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면이나 형태면에서 고차원적인 수업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유의할 것은 학부에서 대학원 과정으로의 교육의 전이가 급작스럽게 또 너무 이질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두 과정이 점차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갖고 연결이 되어야 효과적인 교육을 예상할 수 있다 하겠다.

(1) 1981년 8월 18일 한국 정신문화 연구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세미나에서 '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제목으로 한 토론회에서 사범대학 교육의 목적 대상을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종합 의견이었다: 중등교사양성, 대학교수 양성, 고급 인력양성.

이와 같이 대학원에서의 독어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a) 이론적인 면에서 전공과목(Fachwissenschaft)의 지식과 연구 방법을 확립, 확대 또 심화시키며, b) 실제적인 면에서는 전공 교수법(Fachdidaktik)의 학습을 충실히 하여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기술을 터득해야하는 효과적인 교육을 강구하여 연구자(Forscher)로서 또 가르치는 사람(Lehrer)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전공분야와 전공교수법을 중심으로 대학원에서의 독어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자 한다.

### 3.1. 전공과목 교육

어학 교육은 한 언어를 구조, 형태, 의미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Kommunikationsmittel)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kommunikative Kompetenz) 배양을 원래(primär)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국민, 국가, 그들의 생활, 풍습, 문화를 배우는 데 이차적인(sekundär) 목적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언어외적(außersprachlich) 목표가 이차적이라 해서 언어적인(sprachlich) 일차 목표보다 중요성이 적다는 것은 아니며, 이 두 목표는 동시에 학습되어야 하며, 상호 보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언어의 구조, 형태, 의미를 충분히 알아도 그 언어가 지시, 내포하는 언어외적인 현상을 모르면, 문맥상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아니면 오해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Opitz(Opitz 1977:193-208)는 외국어 수업에서 독일신문이나 잡지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하였으니, 이는 특히 메스컴에서는 당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에 언어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어학 교육의 이대 목표는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전 과정에서 공통된 것이라 하겠으며, 독어 교육 또한 이 두 목표를 과제로 한다 하겠다. 이 두가지 목표를 실용주의적 또는 문화주의적(정진욱 1973:191) 목표라고도 표현되고 있으며 이 목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동·서 각국에 공통된 목표라 하겠다.

의사소통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언어를 언어자체를 위해서(Sprache als Lerngegenstand) 배우는 것보다 사회적 행위의 매개체로(Sprache als Medium der sozialen Aktion)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Krumm 1978:94).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제 2의 국어로 독어를 배우는 경우와, 한 한국 학생이 독일에서 직접 독일어를 배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독일어가 대학 입시준비를 위한 대상자체로 배우다 하겠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일어를 표현도구로써 배우고 사용한다 할 수 있다. (이는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도 같은 상황에 속한다 하겠다.) 이 두 상황을 비교해 볼 때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로 학습자의 동기가 전자보다 강할 것이며 학습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특히 학습자는 그 나라에 직접 처해 있어 그 나라의 생활, 풍습, 문화를 직접 접하기 때문에 언어외적인 요소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도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많다 하겠다. 이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어학교육의 이차 목표는 일차 목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학습자가 외국의 문화와 모국의 문화와의 갈등 사이에 처해있을 때 이를 극복해 나갈 능력도 기르는 것이 어학교육의 목표에 속한다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면 어학교육의 목표대상인 의사소통(Kommunikation)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 3.1.1. 의사 소통

의사소통이란 정보를 교환함 (Informationsaustausch)을 뜻하며 이 개념은 어학 교육에 서는 한 언어의 문장을 구조, 형태, 의미면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이 일정한 상황(시간, 장소, 내용, 문맥등)에서의 상호작용 또는 “양면 교통과정(two ways process)” (원경식 1981:38)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상호작용은 한 매개체 (Medium)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이에 중요한 매개체는 언어(Sprache)라 할 수 있으며 이 매개체를 통한 의사소통을 언어적 의사소통(sprachliche Kommunikation)이라 하고 이외에도 언어외적인 매개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니, 이를 언어 외적 의사소통(außer-sprachliche Kommunikation)이라 하며 제스처(Gestik)라든가 표정(Mimik)이 이에 속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직접 구두로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 구두적 의사소통(mündliche Kommunikation)이라 하여 음표(Lautzeichen)를 매개체로한 발화자(Sprecher)와 수화자(Hörer)의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간접적으로 신문, 책등을 통한 의사소통을 서면 의사소통(schriftliche Kommunikation)이라 하며 문자 (Schriftzeichen)을 매개체로한 의사소통으로서 저자(Schreiber)와 독자(Leser)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이에 전자를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situative Kommunikation), 후자를 매개체에 의한 의사소통(mediale Kommunikation)이라하는 학자(Opitz 1977:194-1977:194-197)도 있으나 어떤 의사소통이든지 매개체를 통하지 않는 형태는 없고, 또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 의사소통은 없기 때문에 별로 타당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Kommunikatives Handeln)는, 언급했듯이, 일정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또 의사소통의 참여자(Kommunikationspartner), 즉 Hörer, Sprecher, Leser, Schreiber 또한 사회적인 위치에 놓여 있으므로, 이 행위는 언어적인, 사회적인, 심리적인 면에서의 복합된 행위라 하겠다. 따라서 이 행위는 사실(Sache), 상황(Situation) 또 연관성(Beziehung)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행위의 영역(Kommunikationszone)은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 ㉡일반적으로 사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 ㉣공식적인 관계의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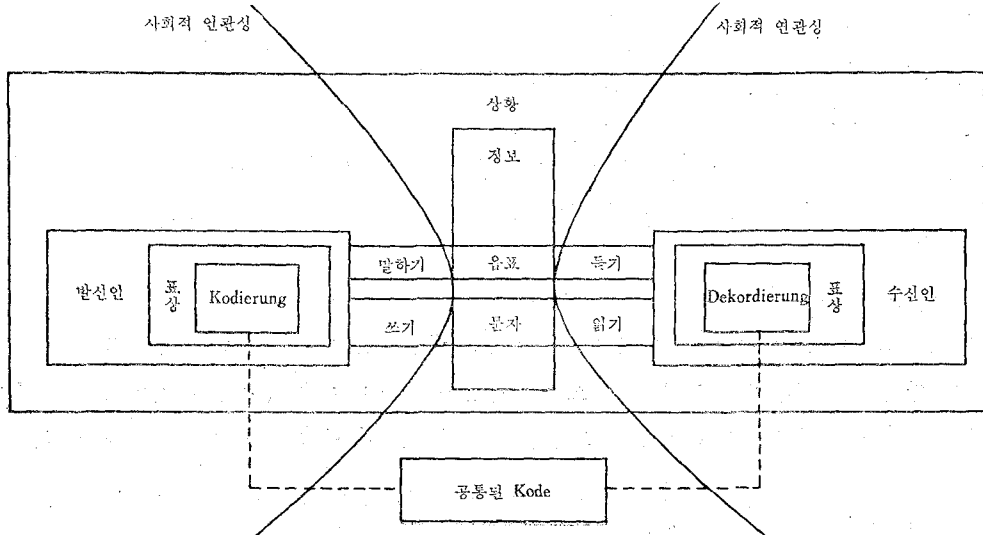
으나, 이 영역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기보다는 상호, 유동적인 관계를 갖는다 하겠다. 어학 교육에서는 이 네 영역을 고루 다루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다.

이 의사소통의 행위과정(Kommunikationsprozeß)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치게 된다. 우선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자기 의사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말하는 사람에게 표상(Vorstellung)으로 존재한다. 이 표상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호(Kode)로 표현되어야하니, 즉 듣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양자사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호에서 자기 표상에 맞는 부호를 찾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매개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정보를 부호의 힘을 빌어 의미를 알아내어 같은 표상을 얻게되니 이 행위를 “부호를 알아낸다” 즉 Dekordierung이라하며 그리하여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전달하고자 하는 표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언급한 대로,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니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이 의사소통의 참여자를 발송인(Produzent)과 수신인(Rezipient)이라 한다. 이 발송인과 수신인이 소유하는 부호는 각각 다르며 상호간에 공통되는 부호가 존재하고, 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호를 찾아서 같은 표상을 얻게 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상호간에 공통된 부호를 못찾는 경우 의사소통의 행위과정에서 방해현상이 일어나니, 서로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하던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겠다.

이 의사소통의 과정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모델(Kommunikationsmodell)이 성립된다(Bergmann/Pauly 1976:22).

이 모델에 나타난 각 분야가 어학교육에 관계가 된다 하겠다. 우선 어학교육의 대상은 Lautzeichen과 Schriftzeichen에 근거를 둔 구어(gesprochene Sprache)와 문어(geschriebene



Sprache)가 되겠으며, 이에 정보의 매개역활을 하는 음파(Schallwelle)는 음성학의 연구대상이 된다. 언어의부호(sprachliche Kode)는 한 언어의 체계(Sprachsystem)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언어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형태, 문장구조, 의미분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 세 분야들이 음운론(Phonologie), 문장론(Syntax), 의미론(Semantik)으로서 언어학의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어학교육의 목표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세분야의 언어부호를 학습과정에서 배우고, 확대시키며, 동시에 이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기능과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 의사소통의 참여자의 사회적, 심리적인 면을 다루는 사회언어학, 심리 언어학이 있으며 이 분야도 어학 교육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의사소통이란 상호 행동(Interaktion)임으로 아무리 언어부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에는 언어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방해현상이 끊임 없이 따르게 되므로, 이 현상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어학교육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 3.1.2. 언어 기능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언어의 4가지 기능(4 Sprachfertigkeiten)이 있으니 이는 말하기(Sprechen), 듣기(Hörverstehen), 읽기(Leseverstehen), 쓰기(Schreiben)이다.

이 4가지 기능은 언어의 음성적인 표현(phonische Repräsentation)과 문자적인 표현(graphische Repräsentation)에 의거한 것이며, 또한 한 개인이 한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발화자(Produzent)와 수화자(Rezipient)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4기능의 구분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으니 이는 4기능이 고립되어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4기능이 고립되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발화자, 수화자의 역할도 고립되어 생각할 수 없고 서로 종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들은 것을 써야 될 경우, 아니면 쓰여진 것을 소리내어 읽는 경우에는 읽고 말하는 기능, 듣고 쓰는 기능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하겠다.

또 어떤 기능을 먼저 배워야 하느냐 하는 기능습득의 순서도 문제가 되며, 특히 외국어 교육에서 자주 쓰여지는 번역의 기능은 이 기능에서 제외된 것 또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점 중의 하나다.

이에 교육개발원, 문교부 교과과정 협의회<sup>(2)</sup>에서 독어교육목표를 위한 4기능을 서술하는데 a) 듣고 말하기를 합해서 b) 읽기 c) 쓰기로 구분하는 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듣고 말하는 기능을 하나로 합해서 쓰는 이유는 두 기능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현재 어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회화연습을 위해서는 이 두 기능이 마치 하나처럼 되어야

(2) 교과과정 협의회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는 1981년 6월 15일, 문교부에서는 1981년 8월 22일 개최되었다.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두 기능을 하나로 묶으면 a) 듣는다는 기능이 꼭 말하는 기능보다 앞서야 한다는 의미가 되며 이는 듣는 자를 중심으로한 수동적인 학습을 전제로한 것이며, b) 또 반드시 듣는 것이 말하는 것과 꼭 연관되어져야 하는 것도 또한 실제로 타당치 않으니, 이는 듣는 것과 쓰는 것도 말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듣는 것을 받아쓰는 것은 국민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대학에서도 강의를 듣고 필기하는 것도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독일대학의 입학시험(외국인 학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에서 필기시험 중 문법, 받아쓰기, 또 들은 것을 요약해서 쓰는 Textwiedergabe가 있는 것을 보면 듣기와 쓰기와와의 보다 중요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 기능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며 한 기능이 습득하는 정도는 다른 기능의 습득 정도와 상호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네 기능을 균등하게 배우고, 기능의 순서도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행해져서 의사소통의 기능을 충분히 습득하여 의사소통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어학교육의 목표라 하겠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어학 내지 독어교육이 문어를 중시하여 읽기와 쓰기를 중점적으로 행해졌으나, 이에 구어를 중심으로 한 말하기와 듣기의 기능이 소홀히 된 것은 마땅히 또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구어와 문어라는 언어의 두 역할이 균등하게 강조되어야 하며 어학교육, 회화교육, 대화식 수업이라해서 단순히 구어만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나 교육은 또한 모순이 있다 하겠다.

### 3.1.3. 교재 선정

이 장에서는 대학원에서 독어 교육을 위해 교재를 소개하겠으며 이에 기준은 독일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문(Deutsch als Fremdsprachenphilologie)에 기초를 두고 우리 나라 대학원 실정, 학생수준, 시간배당을 고려하였다.

독어를 언어의 기호체계(sprachliches Zeichensystem)로서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공시적인(synchronisch)방법과 통시적인(diachronisch)방법이 있으며, 현대 언어학에서는 공시적인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독어교육을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전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어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독어발달사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적당한 교재로서는 Pölnz의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sup>(3)</sup>를 들 수 있으며, 인구어로부터 현대어로까지의 독일어 역사를 연대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을 Moser의 Deutsche Sprachgeschichte 또는 Annalen der deutschen Sprache와 비교하면 후자는 독일어의 발달을 언어자체에만 국한시키고 있지만, 전자는 언어자체, 언어 내적인 변화뿐 아니라 그 언어 발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외적 현상도 기술하기 때문에 그 기술영역이 넓다는 점

(3) 이 책과 또 다른 책들의 자세한 제목은 뒤에 참고서적에 기록이 되어있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다. 이밖에도 Tschirch의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가 있으며 이는 독일어 발달을 *Syntax*, *Phonologie*, *Semantik*으로 나누어서 연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경우 대학원 과정중 참고 도서로 권할만 하다.

독어학의 공식적인 발달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입문서로서 Bergmann/Pauly의 *Einführung in die Sprachwissenschaft*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독어를 언어의 기호체계(*Zeichensystem*)로서의 대상과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복합체로서 보고 이에 순수 언어학 외에 사회 독어학, 심리 독어학, 실용 독어학 등의 현재 독일어 발달의 경향을 서술하여 독어학의 전반적인 면을 간략하고 쉽게 다룬 것이 장점이라 하겠다. 또한 Bünning의 *Einführung in die Linguistik*, Funk-Kolleg의 *Sprache I*과 *II*도 어학의 입문서로 들 수 있으며, 후자는 대학원 독어교육을 위해서는 분량이 많은 편이어서 참고서적으로 적당하다 하겠다.

독일어의 *Syntax*, *Semantik*, *Phonologie*, *Morphologie* 등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독문법의 기초가 필요하다.

독문법에는 Helbig/Buscha의 *Deutsche Grammatik*이 있으며 이는 독일어를 어느 언어학의 문법에 치중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서술한 것이라 독문법을 알기 위한 기초 입문서라 할 수 있다.

또한 Bünning의 *Deutsche Grammatik*과 Engel의 *Syntax der deutschen Sprache*가 있으며 전자는 독일 문장구조를 기술하는데 생성문법(*Generative Transformationsgrammatik*)에 의해, 후자는 의존문법(*Dependenzgrammatik*)에 의해 기술하고 있다. 현대 언어학에서 이 두 문법이 문장기술에 대표적으로 응용되고 있으므로 위의 두 책은 표준이 되는 책이라 하겠다. 또 Rall/Engel/Rall의 *DVG für DaF(Dependenz-Verb-Grammatik)* (*Deutsch als Fremdsprache*)라는 책도 권장되어야 하니 이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의존문법에 의해 기술하기 때문에 대학원의 교재로 적당하다 하겠다.

### 3.2. 전공 교수법

교수법(*Didaktik*)이란 수업을 연구대상으로하는 학문(*Unterrichtswissenschaft*)으로 여기에서 수업이라 함은 가르치는 내용, 방법 이외에 이 수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수업을 결정하는 요소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의미에서의 수업을 말한다.

교수법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겠으니, a) 어떤 지식과 능력을 전달하여야 할 것인가와, b) 어떻게 이 지식과 능력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로써, 예전에는 교수법과 방법론(*Methodik*)을 분리시켰으며, 교수법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방법론은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이론은 이제는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Kühlwein/Raasch 1980:41).



그리하여 교수법에는 일정한 대상이 일정한 과제를,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배워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범주(Kriterien)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교수법이 어떤 전공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인 학습 내용과 전달방법을 과제로 하는 반면에 전공 교수법은 전공 과목과 일반 교수법이 서로 교체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전공 교수법에는 a) 전공과목이 어떻게 일반적인 수업목표와 수업의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b) 그 전공과목의 학습목표와 학습방법이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과제로 한다 하겠다. 전공 교수법의 문제점은 바로 이 전공과목과 교육학 사이의 연구분야로써 중간위치에 놓여있고 위 두 과목을 통합시키는 이론을 설정하는데 에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전공 교수법을 다루는 사람(Fachdidaktiker)들은 따라서 a)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이 확고해야 하며, b) 전공분야의 연구대상이나 방법을 교수법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수업하기 타당하고 적당한 대상과 방법을 선정하며 내용이 잘못 전달되거나 아니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어교수법은 의사소통의 기능과 능력을 어떠한 방법과 기술로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목표를 두겠으며 이에 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시된다.

a) 언어 습득시에 독어와 모국어의 상호 의존 관계를 연구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독어수업이 수업시간외에도 학생들의 언어습득 내지 경험을 보충시킬 수 있는가를 해명하여야 한다.

b) 수업에 사용되는 언어와 연관해서 언어외적인 요소와 일상생활의 경험들이 학생들의 언어습득의 동기나 전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c)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 상황에 맞추어 또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도 내용면에 있어서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

d) 교수들도 이러한 수업형태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하며 또 학생들의 수업상황, 전제조건 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대학원에서의 독어교육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과정이 형태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하겠다. 이는 대학원에서는 학생 수도 학부보다 제한되어 있어 교수와 학생사이, 학생과 학생사이의 관계가 보다 더 긴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소통을 중심으로한 어학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업시 독일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하겠다. 그렇다고 수업에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어려운 점이나 애매모호한 점, 중요한 것등은 한국어로 설명하여 오해를 없애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절충 직접 교수법(modifizierende direkte Methode)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대학원학생들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동질(homogen) 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바로 이 동질 그룹의 성격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한 교재를 중심으로한 번역식 위주의 수업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권장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한 테마를 정해서 세미나식으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업방식이며 이에 테마에 필요한 참고서적등은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그룹활동이나 팀 워크같은 형태를 절충할 수 있다 하겠다.

### 3.2.2. 교재 선정

현재 독일에서의 교수법 분야의 경향 등을 알기 위해서는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를 들 수 있으니 이 책은 각국에서 독일어 교육을 여러가지 실험한 내용, 보고, 비평 등도 기재되어 있어 *Deutsch als Fremdsprache*의 분야를 아는 데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책이라 하겠다. *De Grève/Van Passel*의 *Linguistik und Fremdsprachenunterricht*에서는 언어학의 각 대상 분야가 외국어 수업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응용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전공분야의 보다 더 체계적인 수업을 위해서 참고가 된다 하겠다. 세계 독일어 교사회의에서 나오는 책자 (*Grundfragen der Methodik des Deutschunterrichts und ihre praktischen Verfahren*)도 각국에서의 독일어 교육의 실태를 아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 하겠다.

현재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일어 교재를 분석해 놓은 책으로 *Mannheimer Gutachten*이 있으며 각 교재를 어학, 교수법, 독일사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대학원생들이 과정후에 각 중등학교나 대학에서 독일어 교재를 선정할 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 하겠다.

## IV. 결 론

대학원에서 독어 교육은 독어를 전공으로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하겠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전공과 전공 교수법분야의 교육을 강화하여 학부교육의 단순한 연장이기보다는 질적으로 개선된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전공분야의 교육은 독어 자체를 수업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매개수단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의 기능과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독어라는 것은 단순히 음성적인 면, 구조적인 면, 의미적인 면에서의 기호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요소가 함께 포함된 통합체로 생각해야 하며 의사소통도 이러한 면을 종합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공분야의 독어교육은 독어의 이러한 전반적인 요소를 골고루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전공교수법은 이 전공분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를 연구하는 데에 있으며 이에 학습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분석, 해명하여 이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실제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이렇게 전공분야의 이론적인 지식이 확고하며 또 실제적인 면에서 가르치려는 동기가 확고하고 이에 적당한 교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잘 알아야 연구인으로서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진다고 하겠다.

## 참 고 서 적

- 김진우(1969): 언어학과 언어교육, 언어교육 1권 1호 p.10-18.
- 박남식(1979): Immediacy 개념과 외국어 교육, 어학연구 15권 2호, p.141-154.
- 박남식(1979): 한국대학 영어의 교과설계, 어학연구 15권 1호, p.23-38.
- 신용진(1977): 영어교육의 새 모형, English Teaching 13호, p.71-82.
- 원경식(1981): 영어教授의 경향에 대하여, English Teaching 21호, p.29-44.
- 이계순(1977): Teacher Training, English Teaching 13호, S.255-288.
- 이계순(1980): Towards an Implementation of Certain Communicative Aspects in the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Korea, 어학연구 16권 2호, p.289-302.
- 정진욱(1973): 독어교수법서론, 독일문학 14집, p.189-214.
- 한우근(1976): 고등학교 독일어 교재의 구성에 대한 연구, 독일문학 17집, p.293-320.
- 허창운(1974): 외국어 (독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독일문학 15집, p.148-166.
- 황적윤(1969): 외국어 교수법의 어제와 오늘, 언어교육 1권 1호, p.1-9.
- 황적윤(1980): 언어와 사회, 어학연구 16권 2호, p.305-318.
- Bünting, K.D. (1978): Deutsche Grammatik, Kronberg/Ts.
- Bünting, K.D. (1971): Einführung in die Linguistik, Frankfurt a.M.
- De Grève, M./Van Passel, F. (1971): Linguistik und Fremdsprachenunterricht, München.
- Eichler, W. (1979): Sprachdidaktik Deutsch, München. Mannheimer Gutachten zu ausgewählten Lehrwerken Deutsch als Fremdsprache (1979), 2 Bände, Heidelberg.
- Engel, U. (1977): Syntax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Berlin.
- Eppert, F. (1978): Erzählen und Diskurs, in: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IV, Heidelberg, S.22-40.
- Funke, H.G. (Hrsg.) (1975): Grundfragen der Methodik des Deutschunterrichts und ihre praktischen Verfahren, München.
- Funk-Kolleg (Hrsg.) (1975): Sprache, 2 Bände, Frankfurt a.M.
- Helbig, G./Buscha, J. (1975): Deutsche Grammatik, Leipzig.
- Kim, E. (1979):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in: Koreanische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H. 23, S.85-109.
- Kim, E. (1980): Probleme der Methodenrezeption, in: Koreanische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H. 25, S.451-473.
- Kühlwein, W./Raasch A. (1980): Angewandte Linguistik, Tübingen.

- Lado, R. (1980): English Education Today, in: English Teaching 19, S.5-24.
- Lado, R. (1976): Language Teaching A Scientific Approach, Bombay-New Dehli.
- Moser, H. (1972): Annalen der deutschen Sprache, Stuttgart.
- Moser, H. (1955): Deutsche Sprachgeschichte, Stuttgart.
- Opitz, A. (1977): Zeitungsartikel im Deutschunterricht für Ausländer, in: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Bd. 3, Heidelberg, S.193-208.
- Pauly P./Bergmann R. (1975): Einführung in die Sprachwissenschaft für Germanisten, München.
- Polenz, P.v. (1970):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 Rall M./Engel U./Rall D. (1977): Dependenz-Verb-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Heidelberg.
- Tschirch, F. (1971):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2 Bände, Berlin.
- Weisgerber, B. (1974): Theorie der Sprachdidaktik, Heidelberg.
- Wienold, G. (1973): Die Erlernbarkeit der Sprachen, München.
- Wierlacher u.a. (Hrsg.) (1975f.):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Heidelberg.
- Zehnder, E. (1975): Überlegungen zu kommunikativen Faktoren im Unterricht Deutsch als Fremdsprache, in: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Bd. 1, S.58-65.

Deutschunterricht in der Post-Graduate School in Korea  
German Language Teaching in the Post-Graduate School in Korea

Zung-Zin Kim  
Kwang-Sook Lie

**Abstract**

Der Deutschunterricht in der Post-Graduate School in Korea zielt auf die Ausbildung der Studenten als Fachwissenschaftler und Lehrer.

Die Ausbildung muß sich daher auf den Unterricht für Fachwissenschaft und Fachdidaktik konzentrieren. Die Fachwissenschaft beschäftigt sich beim Fremdsprachenunterricht mit der Kommunikation, Kommunikationsfähigkeiten und-fertigkeiten. In der Didaktik kommt es nicht nur auf die Bildungsinhalte, sondern auch auf die Methode des Unterrichts an.

Der Deutschunterricht in der Post-Graduate School weisen in den genannten Bereichen einige Probleme auf, die mit der Zeit gelöst werden sollen.